

엔저 심화…광주對日수출 절반 가까이 급감

3분기 41% 줄어…8개월 연속 마이너스

적정환율과 40원 격차…수출포기 업체도

을 초부터 계속된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로 광주지역 기업들의 대(對) 일본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일본 수출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지역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지역 산업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업들의 대일본 수출은 2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2.8%의 소폭 성장을 나타냈지만 2월(-26.8%), 3월(-19.0%)에 이어 4월(-37.5%), 5월(-36.6%), 6월(-34.3%), 7월(-38.3%), 8월(-48.6%), 9월(-35.6%)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이다. 지난 3분기 기준 일본 수

출은 -40.9%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누적 기준, 반도체는 무려 -54.5%나 수출이 감소했으며 고무제품(타이어 포함) -26.9%, 건전지 및 축전지 -25.7%, 금형 -5.5% 등 광주의 주요 수출업종 모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지역연고 대기업인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수출도 올해 27.6%나 줄었다.

이처럼 대 일본 수출 약세가 계속되는 것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 심화가 주요 요인이다. 엔화 약세에 비해 한국의 원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역 수출기

업들은 극심한 환차손을 겪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6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원-엔 적정환율은 100엔당 1119.1원으로, 기업들은 '최소 이 수준이 돼야 체산성이 맞는다'고 했지만, 22일 현재 원-엔 환율은 1078.11원까지 떨어지면서 적정환율을 보다 40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올 초 원-엔 환율이 100엔당 1300원대를 유지할 때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현재 15% 이상 절하된 엔화 탓에 기업마다 15~20% 이상 영업 이익이 줄었

을 것"이라며 "수출량의 변동은 크지 않은 데 매출이 뚝 떨어져,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 수출 상담을 통해 수주 단계까지 갖으나 환율 문제로 수출을 포기한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 일본 수출량은 비슷한데 엔화 약세로 제값을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확대해 손실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봇 석학 데니스 흥 광주TP 방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로 유명한 세계적인 로봇 석학 데니스 흥 교수(오른쪽)가 22일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 유동국 테크노파크 원장과 광주지역 로봇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데니스 흥 교수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겸 로봇마커니즘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기아자동차는 22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W호텔 버스터미널에서 5년 만의 쏘울 후속모델 '올 뉴 쏘울(All New Soul)'의 신차 발표회를 열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차 5년만에 출시한 신차 '올 뉴 쏘울'

투톤 컬러…色으로 승부한다

기아자동차는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쏘울 후속모델 '올 뉴 쏘울(All New Soul)'을 내놓고, BMW의 미니쿠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아차는 22일 서울 광장동 W호텔에서 '올 뉴 쏘울' 신차 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올 뉴 쏘울'은 기존 쏘울의 독

창적인 디자인을 계승·발전시키고, 특별한 디자인 포인트를 각 요소에 적용해 쏘울 만의 '디자인 DNA'를 재해석했다. 특히 차체와 루프를 서로 다른 색으로 조합한 '투톤 루프'와 다양한 컨셉트에 맞춰 내·외장 주요 부위에 특징 컬러를 적용한 '컬러존', 세계 최초로 취향에 따라 헤드 커버를 바꿀 수 있는 '18인치 체인저를 컬러휠'은 고객의 개성을 더욱 드러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임동률기자 exian@

새 쏘울의 갑마 1.6 GDI 엔진을 탑재한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132ps, 최대토크 16.4kg.m와 11.6km/ℓ의 연비를 갖췄으며 U II 1.6 VGT 엔진을 탑재한 디젤 모델은 최고출력 128ps, 최대토크 26.5kg.m의 동력성능을 발휘한다.

서춘관 기아차 국내마케팅실장은 "쏘울은 경쟁하는 차가 없지만 굳이 따지면 미니쿠퍼"라며 "연간 19만대(국내 2만대, 해외 17만대) 판매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서 첫날 50여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300여명 안팎이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위원회는 전체 1000억원 가운데 100억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호고속-코레일 광주본부 교통체계 연계

광주·전남권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금호고속이 코레일 광주본부와 광주·전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호고속은 22일 광주역에서 코레일 광주본부와 철도 및 육상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조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철도 이용이 어려운 광주·전남권에서도 버스로 여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소지한 관광객들을 위해 프리패스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정희기 금호고속 전무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이 광주·전남

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레일과 협력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철도 이용이 어려운 광주·전남권에서도 버스로 여행이 가능하도록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소지한 관광객들을 위해 프리패스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정희기 금호고속 전무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이 광주·전남

국민석유, 광주지역 주식 공모 호응

'20% 값싼 착한 기름'…4일만에 300여명 청약

'20% 값싼 착한 기름'을 기자로 내건 국민석유주식회사가 1단계 자금인 1천억원 조달을 위해 시작한 광주지역의 주식 공모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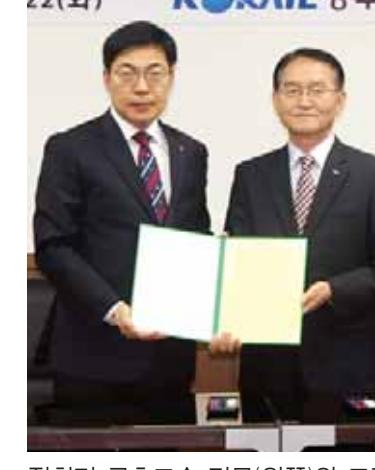
22일 국민석유 광주위원회(상임 공동대표 황일봉·김상집)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시 남구 월산새마을금고에서 '국민석유 청약 성공 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주식 청약 모집을 시작했다.

한편 국민석유주식회사 대표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광주위원회는 전체 1000억원 가운데 100억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2(화) KORAIL 광주



정희기 금호고속 전무(왼쪽)와 코레일 반걸용 광주본부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나주혁신도시 중흥 S-클래스 메가타워

청약 경쟁률 평균 4대1 '인기'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22일 중흥건설에 따르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공급하고 있는 중흥 S-클래스 메가타워에 대해 지난 18일 결본주택 개소와 동시에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총 접수 4986건, 최고 49 : 1(M형), 평균 3.97 :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중흥 S-클래스 메가타워는 지하 2층~지상 12층, 전용면적 28~71㎡로 구성되는 2483실(1차 1227실·2차 1256실)의 대규모 오피스텔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2015년까지 15개 공공기관, 6500여명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미 이전이 완료된 우정정보통신센터를 비롯,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대기하고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가 이번 청약 결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대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업 대표인 오모씨는 "최근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나 혁신도시는 시장분위기와 상관없이 분위기가 좋은 편"이라며 "특히 중흥 S-클래스 메가타워의 경우 임대수요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소득·법인세와 같은 혜택이 있어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박철홍씨 추대

제8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에 골드클래스(右) 박철홍(57) 회장이 추대될 전망이다.

22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제8대 회장 선임 보궐회를 지난 18일 마감한 결과 박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보광건설(左), 보광종합건설(中), 골드디움(下)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주택건설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장하기도 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9일 광주시 운암동 그랑시 아워디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선임 보궐회로 박회장을 회장으로 추대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페인트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침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유하는 치유제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 성사 시까지...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초

홀

수련 회원

男	전문직 회원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27~42세
시법, 행정 고시 합격자	VIP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27~42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7세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27~36세

재

홀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32~68세

<tbl_r cells="3" ix="4" maxcspan="1" maxrspan="1"